

NEWS

벤·처·관·련

정통부, IT M&A 지원센터 공식 출범

정보통신부가 지난 11월 8일 송파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빌딩에서 IT 부품(SoC) 분야 M&A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IT 중소기업 M&A 지원을

위한 'IT M&A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IT 부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M&A 등을 통한 업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높은 IT 부품 중소기업과 M&A 투자 경험이 풍부한 펀드운용사가 자리를 함께 하여 M&A 방안을 논의하고 참가사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T 분야에 풍부한 M&A 경험이 있는 한국기술투자는 IT 부품 분야 M&A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PE(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를 운영하고 있는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관계자와 8개 IT 부품 중소기업 대표가 업체 M&A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운영에 들어간 IT M&A 지원센터는 M&A에 관심이 있는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내외 투자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M&A 시장전문가와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IT 기업에 신뢰성 있는 M&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 2012년까지 120개 과학관 건립

과학기술부가 오는 2012년 까지 과학관 120개(100개 운영, 20개 건립 중)를 확충한다. 과기부는 최근 과학관육성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관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이다. 과기부는 관계부처 검토의견과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12월중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 2007년도 신기술(NEI) 예정기술 발표

과학기술부는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NEI) 예정기술 38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2007년 제3회 신기술 선정·평가에서는 기업 등에서 신청한 146개 기술에 대해 1차 서류 및 면접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38개 기술을 최종 2007년도 제3회 신기술(NEI) 예정기술로 선정했다.

분야별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소재분야 14개, 전기·전자분야와 건설·환경분야 각각 7개, 화학·생명분야 5개, 정보·통신분야 3개, 원자력 분야 2개 기술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기술이 25개, 대기업 기술이 9개, 공동 신청한 기술이 4개 선정되었다.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중기청,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선정 지원

2012년까지 중소기업수출 2,000억불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의 중소기업 수출구조고도화 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기청(청장정 이현재)은 자동차 부품, 인쇄회로 등 31개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기존의 해외마케팅 위주의 수출지원방식에서 탈피, 타겟시장 진출을 위한 기획에서부터 신상품 개발, 현지유통망 직접진출 등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형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의 특징은 기존 불특정 다수품목에 대한 시장개척단계 위주의 산발적 지원방식에서 전략품목에 대해 기획, 기술개발, 생산자금 및 해외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바이어발굴 등 기능 중심의 일회성 지원방식에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타겟시장을 설정하고, 해외시장 현지중심의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글로벌 전략품목별 주관단체를 지정, 연말까지 자체 수출구조고도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 2,000억불 달성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 중소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현)이 서울디지털단지 입주 중소기업 150여 개사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7일 구로구 소재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세무·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보는 기술보증과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등 기술금융지원제도를

기업은행은 혁신형중소기업의 융자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절세와 세무관련 애로 해결방안과 산업재산권 등록과 활용방법 등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무·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상담과 접수를 받기도 했다.



경북도, 로봇체험관 '로보라이프 뮤지엄' 개관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을 한자리에 모아 체험도 하고 전시할 지능로봇체험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은 연면적

1,950㎡이며 전시관은 도입부, 제1전시실(지능로봇홍미관), 제2전시실(지능로봇 체험관) 제3전시실(지능로봇탐험관)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에는 해양로봇 연구를 위한 대형 수족관이 마련되어 있다.

지능로봇체험관에서는 로봇의 제작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로봇의 눈과 얼굴을 보여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 및 시연되고 로봇 원리를 직접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우주선과 로봇, 미래형자동차, 영화속 로봇, 생명로봇, 지상정찰로봇, 인체 탐사로봇, 원자로봇, 구조로봇, 6족탐사로봇 등이 다양한 로봇을 만날 수 있다. 경상북도는 로봇체험관을 지역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추진중인 로봇산업과 지역내 로봇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경주에 조성될 로보파크의 전초기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이 로봇을 아해하고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재미있고 신나는 지능형 로봇체험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광주지역 IT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마스터플랜에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3대 과제 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08-12년) 동안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의 IT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3대 주요 과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을 뒷받침할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 SW개발사업, 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LED용 임베디드 SW 개발사업, 서남해안 교육중심도시에 걸맞는 u-러닝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주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대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 개소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선의학 연구를 위한 부산대학교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가 개소했다. 과학기술부의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연구소 구축사업에 따라 설치된 이 센터는 첨단 암 진단 기기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PET)에 이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여 부산·경남권역의 PET 센터에 보급하고 지역의 대학교, 연구소들과 연계한 최첨단 핵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부산대학교에 설치된 국산 사이클로트론은 2002년 한국원자력 의학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의료기기 업체인 삼영유니텍이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하였다. 이 국산 사이클로트론은 3대 이상의 PET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뿐만 아니라 양성자 빔을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의 국산 사이클로트론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2005년 경북대병원, 2006년 조선대학교에 이어 부산대가 세 번째로 문을 열게 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강원대,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 병원의 센터가 잇따라 개소할 예정이다.



전파연구소, IT 신제품 인증제도 간담회 개최

IT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지원해 온 전파연구소(소장 김치동)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14일 전파

연구소에서 IT 신제품 인증획득업체 CEO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제품 인증획득 기업간 정보교류를 통해 IT 신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과 IT 중소·벤처기업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IT 신제품(ITP)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부가 2006년 5월부터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를 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9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57개 기업이 선정되는 등 인증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보사회진흥원, IT솔루션 성과측정 방법론 확산에 나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이 IT솔루션 도입 성과측정 방법론의 보급을 위해 6개 IT서비스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6개사는 '엘제이텍', '이시스', '에스유지', '인터온', '본아트', '플로우비즈'이다. 정보사회진흥원은 IT서비스기업에 방법론, 진단 SW, 교육 등을 제공하고, IT서비스기업은 정보화 성과측정 결과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한다. 제출된 성과측정 결과는 DB화되어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방법론은 IT서비스기업의 사전영업 또는 고객지원용으로 사용되며, 자사의 정보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사의 정보화 성과를 스스로 측정하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과정을 통해 정보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T솔루션 도입 성과측정 방법론 사용 계약 안내는 참여형 중소기업 정보화지식포털(IT도움, www.itba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

대·덕·R&D·특·구

대덕특구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2007년 제3회 대덕특구 기술이전설명회'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구내 우수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으로 이전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IT관련 8개 우수기술에 대한 소개와 상담회가 이루어졌다.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기술이전설명회는 기업체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진행한 것으로, 앞으로도 특구내 우수한 기술이실수요자인 기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벤처기업 실태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7년 8월부터 벤처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신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 총 23개 기업이 이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첨을 축하드리며, 내년 진행될 <2008 벤처기업실태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벤트 추첨은 유효표본 3,244개사 리스트에서 0부터 2사이 범위 내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가장 높은 난수 부여 기업부터 1~4위까지 선정.

※ 3등에 선정된 투비시스템즈는 상금 100만 원을 한사랑벤처칼레이온동에 기부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기탁하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순위	당첨내역	회사명	대표자
1	현금 300만원	모비더스	차영목
2	현금 200만원	아토정보기술	강관식
3	현금 100만원	투비시스템즈	장용희
4	도서상품권(15만원)	아진테크리인	정명섭
		이웃닷컴	김준평
		아이디스	김영달
		세미아스테크놀로지	김승모
		관문산업	김상근
		지원매니아	김영철
		도원닷컴	김수천
		우주특수산업	백형용
		나노컴주식회사	공석우
		명성정밀	허일환
		디지털하우스	윤재학
		풍테크	남기훈
		크라프	변수룡
		아이앤테크	정동근
		한주산업	서정록
		에이스메디칼	이종우
아이웬스주식회사	이문기		
파워파티	이승일		
한진테크	박규용		
제이앤엘테크	전영하		